■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81-516.
http://doi.org/10.17948/kcs.2019..83.481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와 정치의식*

권순긍(權純肯)**

목 차

1. 머리말
2. 애정서사를 통한 정치의식의 개입
3. 정치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와 풍자
4. 맺음말

국문초록

이주홍의 「탈선 춘향전」(1951)은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재담을 활용한 디테일을 통해 1950년대 자유당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주정치에의 염원,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담론화 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춘향의 인물형상을 변개하여 이몽룡과의 논쟁이나 변학도를 향한 수청거부와 저항을 통해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애정서사의 빈자리는 방자와 향단의 사랑으로 대체하였다.

김주영의 「외설 춘향전」(1994)은 새로운 인물 장돌림과 최씨 부인을 추가하여 장돌림의 주도로 사건을 변개하여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성사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인물에 의해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어 「춘향전」의 애정서사를 양반이 아닌 피지배계층인 민중들에 의해 주도되는 일들로 변개하고자 했다. 이런 변개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세명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지배층인 양반계층의 무능과 한계를 풍자하여 1980년대 이후 성장된 민중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편 최인훈의 「춘향뎐」(1967)은 주요 인물과 사건을 변개하여 춘향의 수청거부와 그로 인한 수난을 1960년대 정치적 알레고리로 삼은 작품이다.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이몽룡은 춘향을 구할 수 없는 데다 신임 암행어사는 춘향을 자신의 첩으로 요구하는 처지에서 이들은 '밤도망'을 해서 소백산 속에 숨어든다. 심마니 노인과 만났지만 나중에 찾아갔을 때는 결코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춘향전」의 익숙한 서사를 변개하였다. 변학도의 협박과 암행어사의 회유에도 이들이 지킨 사랑은 자유당 독재정권과 5.16 군사정권의 폭압과 회유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로 보이며, 이들의 자취가 산삼으로 남았다는 설정은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읽힌다.

임철우의 「옥중가」(1990)는 「춘향전」의 서사를 대폭 변개하여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알레고리로 삼았다. 이몽룡이 변판서의 사위가 되기로 약조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던 탓에 남원에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안방 차지'를 하려고 '열녀' 시늉을 하던 춘향은 이 소식을 듣고 변학도의 첩으로 들어가 '확실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로 「춘향전」을 변개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을 벌였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배신한 야당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풍자했다.

주제어: 「춘향전」, 변개, 정치의식, 애정서사, 알레고리, 민주주의, 수청거부.

1. 머리말

근대 초기 신소설 작가인 이해조(李海朝, 1869-1927)는 이른바 '소설개량'을 주장하면서 "「춘향전」을 보면 정치를 알겠소, 「심청전」을 보고 법률을 알겠소, 「홍길동전」을 보아 도덕을 알겠"[1]냐고 반문했다. 왜 하필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에 정치가 거론되는가? 그리고 이어서 「춘향전」을 '음탕교과서'로 규정하고 "국민을 음탕교과서로 가라치면 어찌 풍속이 아람"[2]답겠느냐고 비난했다. 무지한 민중들을 계몽할 근대적 담론인 '정치'를 소설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녀의 '음탕한 사랑' 이야기로

1) 李海朝, 『自由鐘』, 博文書館, 1910, 10면.
2) 같은 책.

일관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물론 이는 정치와 법률과 도덕이라는 근대적 담론을 당시 소설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에 자신의 소설 『자유종(自由鐘)』(1910)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낡고 오래된 이야기인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을 비판하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상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이라는 「춘향전」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그 자체가 워낙 재미있고 기복이 심해 근대문학기에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지위를 누렸다. 이해조 역시 그 뒤에 「춘향전」을 변개한 「옥중화(獄中花)」를 통해 자신의 주장처럼 정치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풍속개량'을 시도해 상호신뢰라는 근대적 애정윤리를 제시하기도 했다.[3] 그런데 이 「옥중화」로부터 시작된 활자본 「춘향전」은 연간 7만 권 정도가 팔리고, 200종의 이본을 파생시킨 일제시기를 대표하는 소설작품으로 역설적이게도 '신문학' 또는 '근대소설'의 대표작이 되었으며,[4] 이런 인기에 착안하여 김기진(金基鎭, 1903-1985)은 신경향파 소설을 「춘향전」 식으로 쓰자는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5] 이해조는 근대담론인 '정치'를 알겠냐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춘향전」의 스토리텔링은 근대문학기에도 가장 인기 있는 애정소설의 지표가 되었다. 이런 탁월한 스토리텔링 때문에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modification)'도 다른 작품에 비해 두드러져 이해조의 「옥중화」로부터 현재까지 변개된 소설은 모두 12편에 이른다.[6]

① 이해조, 『獄中花』, 박문서관, 1912.

---

3) 권순긍,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159-160면 참조.
4)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70-76면 참조.
5) 김기진은 「通俗小說小考」에서 "극도로 곤란한 객관적 정세하에서 (…) 오늘보다도 더 심하게 ××[탄압] 당한다면 「춘향전」 중의 '金樽美酒千人血, 玉盤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이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들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고 「춘향전」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신경향파 소설의 창작 방향을 제안했다. 김기진, 「通俗小說小考」, 『朝鮮日報』 1928.11.20.
6) 이는 필자가 확인한 목록이며, 조택원의 「新稿 춘향전」, 조흔파의 「성춘향」은 노지승, 「'춘향전' 패러디 소설과 1955년 영화 「춘향전」」, 『한민족어문학』 제5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56-57면 참조. 한편 패러디 작품으로 자주 거론되는 안수길의 단편 「이런 춘향」(『자유문학』 1958.11.)은 포주의 의붓딸인 진주가 애까지 낳았지만 미군 병사 패터슨에게 버림받는 내용의 단편으로 제목에 '춘향'이 언급될 뿐 인물과 주요 사건은 「춘향전」과 무관하여 근대적 변개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광수, 「一說 春香傳」, 『동아일보』, 1925.9.30-1926.1.3.
③ 김규택, 「억지춘향전」, 『조광』 7권 2-7호, 1941.2-7.
④ 이주홍, 『脫線春香傳』, 남광문화사, 1951.
⑤ 조풍연, 『나이롱 춘향전』, 진문사, 1955.
⑥ 조택원, 조상원 편저, 『新稿 춘향전』, 현암사, 1956.
⑦ 조흔파, 「성춘향」, 『女苑』, 1956-1957.
⑧ 최인훈, 「춘향뎐」, 『창작과 비평』 1967년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1967.
⑨ 임철우, 「옥중가」, 『물 그림자』, 고려원, 1991; 『금호문화』(비매품) 1990.4.
⑩ 김주영, 『외설춘향전』, 민음사, 1994.
⑪ 김연수,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창작과 비평사, 2005,
⑫ 용현중, 『백설춘향전』, 노블마인, 2014.

이 12편의 근대적 변개 소설들은 「춘향전」의 주요 인물(춘향, 이몽룡, 변학도)과 사건을 여러 방식으로 변개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패러디(parody)'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는 이해조가 아쉬워했던 '정치'를 담론화한 작품들을 살펴본다. 애정소설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시대 배경과 인물의 변개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탈선춘향전」(1951)과 「외설춘향전」(1994), 처음부터 정치서사로 알레고리(allegory)화 한 「춘향뎐」(1967)과 「옥중가」(1990)를 통해 「춘향전」의 애정서사가 근대에 들어와 어떤 방식으로 정치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교 원전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이고본(李古本)을 활용한다.

「춘향전」은 일찍이 김태준에 의해 그 의의가 '특권계급에 대한 반항', '서민계급의 승리', '평등사상 고취'에 있음이 거론된[7] 이래 많은 논자들에 의해 그 정치적 지향이 논의되었다.[8] 여기서는 「춘향전」의 문학사적 평가가 아니라 인물과 서사구조를 변개하여 근대적 정치의식을 어떻게 형상화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 작가는 직접 현실의 문맥을 소설화 하지 않고 오래 된 이야기인 「춘향전」을 변개하여 당대의 정치의식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7)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165-167면 참조.
8) 「춘향전」의 정치적 지향을 언급한 논의는 수없이 많은데, 역사성과 민중성을 강하게 드러낸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가 주목된다.

이 논의는 「춘향전」의 애정서사가 변개를 통해 현대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며 동시에 '고전의 창조적 계승'으로서 「춘향전」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애정서사를 통한 정치의식의 개입

1) 1950년대 민주정치와 여권신장에 대한 염원, 「탈선춘향전」(1951)

이주홍(李周洪, 1906-1987)의 「탈선춘향전」은 애초 1949년 부산 동래중(東來中) 연극부의 공연을 위해 단막의 희곡으로 창작되어 『대중신문』에 연재되었다. 다음 해 '광한루 편'에 '월매집 편'이 추가되어 2막으로 늘려 재상연을 거듭하면서 1950년 1월 1일부터 『부산일보』에 연재를 시작했고, 이를 장편소설로 개작해 1951년 남광문화사에서 『脫線春香傳』으로 처음 출간된 바 있다.[9] 이 작품은 애초 '재담극(才談劇)'으로 창작됐기에 소설에서도 해학적인 면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최근에도 '연희단거리패'에 의해 재담극으로 계속 상연되고 있다.[10] 재담극을 소설로 개작하여 '유-모어 소설'이란 부제가 붙은 「탈선춘향전」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의 제목과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꽃과 달과 물찬 제비;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반한 이몽룡이 방자를 통해 만나려고 시도하지만 강경한 춘향의 태도에 물러선다.
② 와서 웃고 가서 울고;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을 찾아가지만 판수가 등장하여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할 거라고 예견하여 사랑은 나누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 나온다.
③ 루팡 때문에; 가짜 이몽룡이 등장하여 오히려 이몽룡이 투옥되어 곤욕을 당한다.

---

9) 이주홍, 「後記」, 『脫線春香傳』, 신구문화사, 1955, 260면 참조. 이 책자는 1951년 남광문화사에서 간행한 판권이 신구문화사로 넘어가면서 1955년 재발간 됐다.
10) 재담극 「탈선춘향전」은 향파 이주홍 탄생 100주년을 맞아 2006년 부경대학교에서 공연된 이래 2007년 밀양공연예술축제를 비롯한 많은 연극축제에서 빈번하게 공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2013년 8월 26일-9월 1일에 연희단거리패에 의해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④ 춘향의 샛서방; 춘향과 이별하고 서울로 가다가 남원역에서 잠깐 졸던 중 꿈속에서 춘향이 가짜 이몽룡과 동침하는 현장을 목격한다.
⑤ 향단은 댄스가 좋아; 방자와 결혼한 향단이 사교댄스에 빠져있고 방자는 강냉이 튀밥을 팔아 살아간다.
⑥ 계집될 번한 변학도; 신임부사로 내려온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했지만 춘향이 거부하자 매를 때리던 중 졸도하여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간다.
⑦ 분렬식 뒤에 오는 것; 변학도는 여자로 태어날 자신의 액땜을 위해 생일잔치에 옥에 갇힌 춘향을 죽이려고 하고, 춘향의 편지를 전하려는 방자는 이몽룡을 만나 운봉옥에 갇힌다.
⑧ 꿈이 사람을 꾸다; 변학도는 꿈에 방망이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월매를 찾아가나 욕만 먹고 쫓겨난다.
⑨ 춘향의 탈옥사건; 춘향의 꿈을 판수가 해몽한 뒤 마침 옥문이 열려 광한루로 갔다가 대기하던 이몽룡을 만났으나 수하에 의해 다시 옥으로 들어온다.
⑩ 돌아온 향가취; 암행어사로 내려 온 이몽룡과 극적으로 해후한다.

소제목부터 1950년대의 풍물세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럭키스트라이크(양담배)', '동까스', 피난민, '국제시장', '댄스', '브랜디', '삐라', '향가취' 등 당대의 풍물이 등장하고 당시 유행어를 서술에 적극 활용하였다. 만남-사랑-이별-수난-재회로 이어지는 「춘향전」의 고정 서사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대배경을 뒤섞어 놓고 인물의 역할과 사건을 대폭 변개하여 색다른 「춘향전」, 곧 「탈선춘향전」으로 이야기를 변개하였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변개는 이미 1930-40년대 김규택(金奎澤, 1906-1962)에 의해 만문만화(漫文漫畫) 「모던춘향전」(『제일선』 1932-1933)과 소설 「억지춘향전」(『조광』 1941)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만문만화 「모던춘향전」은 만화에 사설이 추가된 것으로 1930년대 문화적 코드인 '모던'과 만나 형성됐으며[11] 소설 「억지춘향전」은 소설을 주로하고 삽화가 덧붙여져 이도령과 춘향이 춘향 집에서 만나는 6회 분량까지만 연재되었다. 「억지춘향전」은 「모던춘향전」이 보여 주는 '에로 그로'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감 있게 세태를 반영하여

11)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고은지, 「1930년대 대중문화 속의 '춘향전'의 모던화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4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274-276면 참조.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개함으로써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방자를 통해 당대의 세태나 신분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비중 있게 드러냈다고 한다.[12]

이런 「춘향전」의 모던화 연장선상에 이주홍의 「탈선춘향전」이 위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진 양상은 춘향과 방자의 인물 형상과 여기에 따르는 사건의 변개다. 우선 춘향의 형상을 보자. 광한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반한 이몽룡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데빌구 오라"[13]고 말을 전하자 "그놈은 제 아비 덕에 두둑이 배나 불리고 들어 앉었을 일이지 가문 팔구 세도 팔아서 남의 집 미혼 처녀 농락하는 것만 직업이라더냐?"[14]고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관가를 들먹이는 방자를 향해서도 "그따위 대갈머리는, 개밥통을 만들어버려두 부족한 게라구 그래. 난 서푼어치도 못되는 권력에 누질려서 사랑의 신성을 더럽힐 그런 천하고 썩어빠진 여성은 아니라"[15]고 이몽룡의 초청을 당차게 거부한다. 춘향의 반응은 당당함을 넘어서 권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냄으로써 그만큼 양반들의 권위에 강한 저항을 드러낸다. 춘향의 이런 매몰찬 거절에 대해 작가가 텍스트에 개입하여 "이러다간 이 연극이 약속과는 달리 결렬이 되고 말게 아닌가."[16]하고 우려를 표할 정도다.

이 대목은 세속적인 형상이 두드러진 이고본(李古本) 「춘향전」의 춘향 형상과 유사하다. 방자의 전갈에 "눈흘기며 욕을 하되, '애고 망칙해라. 재미×(씹) 개×(씹)으로 열두다섯번 나온 년석. 누깔은 어름의 잣바진 경풍한 쇠누깔갓치, 최생원의 호패 구역갓치 또 뚜러진 년석이 대갈이는 어러동산의 문달래 따먹든 덩덕새 대갈이갓튼 년석'"[17]이라고 상스럽게 욕을 해댈 정도로 춘향은 비속한 인물로 등장한다. 이 이고본 「춘향전」은 1940년 당시 많은 작가들이 애독하던 『文章』지에 소개되었고, 이 잡지를 중심으로 '조선적인

12) 최혜진, 「김규택 판소리 문학작품의 근대적 특징과 의미」, 『판소리연구』 제35집, 판소리학회, 2013, 275면 참조.
13) 이주홍, 앞의 책, 38면.
14) 같은 책.
15) 같은 책.
16) 같은 책.
17) 「春香傳」(李古本), 『文章』 2권 10호, 문장사, 1940. 자료는 『李明善全集 2』, 보고사, 2007, 294면.

것'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던 무렵이니 이주홍 역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1940년 집필한 시나리오 「전원회상곡」 속에 극중극의 형태로 신창극 「춘향전」 장면을 삽입하여 결말 부분을 작품의 반전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주홍에게 '조선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중요한 문제였고,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춘향전」은 각광 받는 소재였으니 당시 소개됐던 이고본 「춘향전」의 비속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수용됐을 것으로 보인다.[18]

광한루에서 실패한 이몽룡이 결국 방자의 인도로 밤에 무작정 춘향 집으로 찾아가 춘향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춘향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백년가약을 맺자는 몽룡의 말에 "백년가약을 하면 뭘 하나요?"[19]라고 되묻고, "우리가 두 내외 되어서는 나는 벼슬을 구하여 당상 높이 백성을 호령"[20]한다고 하자 "그래 벼슬이 되거들랑 백성의 수족이 되어 알뜰히 나라에 충성을 바침이 마땅하겠거늘, 높은 자리에 뭉개고 앉아 도리어 세도 지위로 백성을 괴롭히려드니, 이 어찌 내 낭군될 자격이 있겠소."[21]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다. 현실정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지인지감을 느껴 사랑에 빠지는 「춘향전」의 형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물론 춘향의 입을 빌렸지만 작가인 이주홍의 정치관일 것이다.

당대 정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입장도 단호하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춘향의 물음에 "당신은 내 귀부인이 되어 여보게- 하고 부르거덜랑 네- 하고 노상 내 옆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22] 하자, 춘향은 "그럼, 나는 아무 생명 없는 나무 둥치가 돼서 연장처럼 당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단 말이오? 아예 난 갑니다."[23]고 자리를 떠나려 해 결국 이몽룡이 "그래, 난 백성의 수족이 되어 당신의 인권을 존중하고 헐 테니 제발 그대로 일어서지나 마우."[24]라며 자신의 입장을 수정할 정도로 춘향은 여권에 대한

18) 김남석, 「1940-50년대 「탈선춘향전」의 변모과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7-12면 참조,
19) 이주홍, 앞의 책, 96면.
20) 같은 책.
21) 같은 책, 97면.
22) 같은 책, 98면.
23) 같은 책.

강경함을 보인다. 1950년대에는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시절이었기에 이런 여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당시의 실정으로는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춘향의 인물이 이렇게 강경하고 단호하니 이몽룡과 둘이 사랑을 나누는 첫날밤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점치는 판수가 나타나 이몽룡이 춘향을 버리고 떠난다고 예언하자 월매가 이몽룡을 두둘겨 패 내쫓고, 그 와중에 가짜 이몽룡이 나타나 이몽룡을 사칭하고 처녀들을 겁탈하고 다니는 바람에 진짜 이몽룡이 체포되고 옥에 갇혀 곤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춘향전」과는 전혀 다른 3-4장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몽룡은 춘향과 "백년가약 맺은 몸이 사랑가 한번 못해보고 말"[25]았다고 한다. 이는 「탈선춘향전」이 애정서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작품의 본질은 당대 정치와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원역에서 잠깐 잠이 들었던 이몽룡이 자신을 사칭하고 돌아다닌 도둑과 조우를 하는데, 그 도둑이 다름 아닌 홍길동의 형상을 하고 있다. 종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의 항렬을 보아 "홍길동의 후예"[26]라 하여 「홍길동전」의 서사가 끼어들기도 한다. 이는 이몽룡과 춘향이 해후한 뒤 "이어서 어디선지 장중한 음악이 흘러왔다. 그것은 전날 이몽룡과 똑같이 생겼다는 시원스런 그 도적이, 지금 어디 머나먼 섬에서 이상국을 이루고 살면서 전파로 보내온 승리 축하의 대교향악이었던 것이"[27]라고 「탈선춘향전」의 이야기가 「홍길동전」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이상국'으로 대변되는 이상사회에 대한 바람을 「홍길동전」을 활용해 암암리에 드러낸 것이다.

한편 춘향의 형상 못지않게 두드러진 인물이 방자다. 방자는 '나용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이몽룡의 언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난하기도 하며 풍자를 해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수동적 하인이라기보다 신분갈등을 느끼면서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는 능동적 인물이다. 이몽룡과 같

24) 같은 책.
25) 같은 책, 128면.
26) 같은 책, 152면.
27) 같은 책, 258면.

이 광한루로 가던 중 '방자'라 부르며 하대(下待)하는 소리에 심기가 불편해 방자는 이렇게 대든다.

> "아이 도령님도! 세상에 허다한 구실 다 두구서 이런 방자된 것만도 원통한데 하필 밑구멍을 파내서 부를 껀 무업니까?"
> 눈을 딱 부릅뜨고 대드는 쎄가 상하구별도 잊어먹은 태도다.
> (…)
>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절 부르길 꼭 '얘 방자야!' 하고 부른단 말씀이죠."
> "그래서"
> "그러자 하니 화가 나서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놈아, 다 같이 타구난 인생에 다 같이 주장할 인권이 있다! 양반은 씨가 있으며, 방자는 뱃속부터 생긴 방잔줄 아느냐!' 하구는 요렇게 한 대 쥐어질렀죠."
> 도령의 턱밑으로 주먹이 들어온다.[28]

방자는 이도령 앞에서 전임부사 아들을 혼내준 얘길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인권'을 주장한다. 물론 이는 조선후기가 아니라 1950년대의 인식으로 방자와 같은 하층민들도 인권이 있음을 내세운 말이다. 이런 방자의 태도는 춘향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몽룡이 춘향 집을 알기 위해 "끓어오르는 생각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뺨따귀가 올라갈 일이로되 거실리자니 사세 난관이라 하는 수없이 또 이쪽에서 무릎을 꿀 수밖에 없다."[29]며 "형님! 방자 형님! 그 심성 좋던 방자 형님이 각중에 맘이 변하셨단 말씀이오. 그 몸이야 비록 천할망정 그 심성의 어질고 점잖음이야 어찌 공자 맹자에 뒤질 게 있으며 (…)"[30]라고 아부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무명 바지저고리, 한산모시 두루마기, 삼성 버선, 공단 조끼까지 해 주기로 약속하지만 "방잣 놈은 몽룡의 진을 잔뜩 빼놓을 양으로 골목이란 골목은 빠짐없이 돌아다니"[31]며 지치게 한 다음 마지막에 춘향의 집을 찾아 간다. 역시 이고본 「춘

28) 같은 책, 14-15면.
29) 같은 책, 49면.
30) 같은 책, 50면.
31) 같은 책, 63면.

향전」에서 춘향을 불러오라는 전갈에 "반상분의 내버리고 형우제공 하"자 하여 "날버덤 손아래니 날더러 호형하"[32]라고 하며, 춘향 집을 찾아갈 때는 방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33]라고 그렇게 부르라 할 정도로 이몽룡을 조롱했으니 이런 방자의 형상을 수용하여 변개했으리라 보인다.

춘향 집에 이르러서도 갖은 방법을 이용해 이몽룡을 조롱하다가 「배비장전」의 뒤주 장면을 활용한다. 개구멍을 통해 간신히 빠져 나와 춘향 집으로 들어왔는데 향단이가 나타나 "지, 지금 말씀이 경을 읽고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신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춘향 아씨가 갑자기 앓게 된 것은, 오늘 광한루에서 어떤 맘에 맞잖은 일을 당한 까닭이라구… 그래, 그 병 준 귀신은 목신이라고 한다니, 제 생각으로는 도령님 성인 이가가, 나무 목 밑에 아들 자 했으니 영락없이 도령님일 것 같애요."[34]라며 호들갑을 떨며 월매가 떡메를 들고 나온다고 전하여 몽룡과 방자는 뒤주 속에 숨는 지경에 이른다. 월매는 "남원천지 넓은 땅에 어디 갈 데가 없어 하필 내 집으로 찾아 들어왔노. 이 원수 놈의 목신아 떡메 받아라. 횟세!"[35] 하며 떡메로 뒤주를 내리치고 그 속에서 방자와 몽룡이 나와 "넌 이놈의 새끼 뉘집 자식고!"[36]라는 욕설을 들어가며 갖은 망신을 다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도령으로 대접을 받는다.

방자와 이몽룡의 관계는 천민이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사건건 무시당하는 신분갈등에서 촉발되어 주객이 전도된 '역할바꾸기'[37]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작품의 전반적인 경향은 해학 위주로 전개되지만 방자와의 관계에서는 「배비장전」을 패러디 했듯이 조롱과 해학의 수준에 있는 「춘향전」보다는 훨씬 통렬한 풍자가 들어있는 「배비장전」에 가깝다. 이주홍도 이와 관련해 「후기」에서 "「裵裨將傳」이니 「장끼傳」이니 하는 諷刺文學"[38]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방자의 형상은 이몽룡과의 대척점에서 양반세력에 대하여 비판하

32) 「春香傳」(李古本), 앞의 책, 293면.
33) 같은 책, 300면.
34) 이주홍, 앞의 책, 77면.
35) 같은 책, 79면.
36) 같은 책, 80면.
37) 한재화, 『개화기 이후의 「춘향전」 연구』, 푸른사상, 2002, 108-110면 참조.
38) 이주홍, 앞의 책, 260면.

고 풍자하는 공격적 인물로서 그치지 않는다. 작품에서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 애정서사의 빈자리를 방자와 향단의 사랑이 메꾼다. 처음 춘향을 부르러 갈 때도 그렇거니와 이몽룡을 춘향 집에 데려가서는 밖에 기다리라하고 자신은 향단과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기까지 한다. 첫날 밤 장면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언쟁을 하고 떠난 빈자리를 오히려 방자와 향단이 차지하고 앉아 유쾌하게 백년가약을 맺는 지경에 이른다.

"잡소리 집어치구서, 우리가 장차 내외가 된다면 당신은 뭘 하겠수?"
"만년 방자지, 뭐 될 게야? 그래, 방자도 좋아. 똥구루마를 끌더라도 뜻만 맞으면 되지 뭐."
"뜻이 어쩌면 맞을까?"
"뭐 별것 있어, 당신 돈 벌어 오문 쌀사구."
"쌀 사서는?"
"내가 밥 짓구."
(…)
"그럼 오-케이!"
두 사람은 웃으면서 쨍그렁! 하고 술잔을 마주쳤다.[39]

춘향과 이몽룡의 인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신경전을 펼치지만 방자와 향단의 사랑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쾌한 모습을 띠고 있다. 결국 이들은 결혼에 이르고 아들 깨돌이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 방자는 가정생활에도 적극적이어서 말집에 취직했다가 이발소를 차리고 나중에는 강냉이 튀밥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방자네 집은 "피난민들통에 방 한 칸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형편"[40]으로 월매 집에 얹혀사는데 향단은 당시 유행이던 사교댄스에 빠져 춤추러 다니고 방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사세가 그러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른다. "그러나 어이하랴. 이것도 선진국을 따르려는 선각자들의 개명운동이라 함에야."[41]라고

39) 같은 책, 100-101면.
40) 같은 책, 173면.
41) 같은 책.

향단의 춤바람을 인정한다. 1950년대 초의 사회상과 세태를 슬쩍 끼워 넣어 향단의 행태를 통해 여권신장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탈선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 방자와 향단의 관계를 통해서 1950년대 민주정치의 이상과 여권신장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했으며, 대신 결여된 애정서사의 빈자리를 방자와 향단의 유쾌하고도 통속적인 사랑으로 메꾸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애정서사의 중심축은 방자와 향단에게 있는 바, 이들의 결혼 후 생활까지 보여줌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사회상과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탈선 춘향전」은 춘향, 이몽룡은 물론 방자와 향단, 월매까지 다소 우스꽝스럽게 비틀어서 웃음을 자아내고 그 과정에서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1950년대의 정치적 이상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한 대목을 보자.

> 나도 이때까지는 이 나라의 위대한 문학가가 될 양으로 그 방면의 공부만을 두문불출 전공해 왔었소. 시전(詩傳)이나 고문진보(古文眞寶)쯤은 벌써 어금니 나기 전부터 졸업을 했었소. 궤-테도 거쳤소. 섹스피어도 다 알아왔소. 그러나 나는 밝은 정사인(政事人)의 출현이 오늘날처럼 시급을 요하는 시대가 없음을 알았소. 나는 지금 법학 전공을 하여 영예스러운 벼슬의 문(門)에 오르랴는 것이오. 나 한사람의 출세를 위한 수단도구로서의 벼슬이 아니라, 진실로 만백성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서 몸을 받힐 수 있는 건전하고도 영예스러운 벼슬이 될 것이오.[42]

오리정(五里亭)에서 춘향과 이별하는 이몽룡의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우스꽝스럽지만 그 속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1950년대의 정치적 이상과 염원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정치의식의 절정은 원전과 마찬가지로 춘향이 수청을 거부하면서 변학도에게 대들고 매를 맞으며 부르는 '십장가(十杖歌)' 대목이다. 변학도가 춘향의 발악을 "저 년이 법 맛을 못 봐서"[43] 그런다고 하자 "법이라니 말 잘 했소. 유부녀 강간하라는 법은 어느 육법전서에 쓰여 있소?"[44]라고 대들며 "벼슬을 주셨을 젠 백성 잘 다스리라 일르셨지 없는 죄 만들어 씌워 사람 치라고 하셨소?"[45]라고 오히려 변학도를 공격한다. 더욱이

42) 같은 책, 139면.
43) 같은 책, 189면.
44) 같은 책.

십장가 대목에서는 매의 숫자에 해당하는 사설을 현재화 시켜 원전 「춘향전」의 정절과 연관된 전례와 고사성어처럼 여기서는 '이번 매'에 "이십 세기는 아닐망정 이상의 정치는 민주정치, 이치에 맞잖는 사리사욕에 이 나라 이 법을 망치려오."[46]하며, '삼번 매'에는 "삼일의 정신으로 합쳐질 관민마음의 삼팔이란 웬 말이요."[47]라고 자유당 독재정치에 대한 비판과 민주정치와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다.

옥에 갇혀 죽게 된 춘향과 암행어사로 내려온 이몽룡이 재회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남원의 '과부동맹'에서 내건 '브랑카-드'를 통해서도 작품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성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라! 정치의 민주화 만세!"[48]다. 곧 이 작품은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각 장면들을 당대의 재담과 해학의 방식을 활용하여 1950년대 자유당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주정치에의 염원,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개시킨 것이다. 재담을 통한 이런 해학과 풍자의 방식은 원래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력이고 「탈선춘향전」은 그런 미학적 기제를 복원한 셈이다. 작품의 「후기」에서 "나는 諧謔의 面을 通하여 이 古典을 뚫고 들여다보는 것도 意義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곧 이 古典을 現代化 하는 데의 좋은 지름길이 되는 한 樣式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49]고 작가가 강조한 것이 바로 그 점일 것이다.

2) 민중들의 주도와 양반층의 무능, 「외설춘향전」(1994)

김주영(金周榮, 1939-)의 장편 「외설춘향전」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틀을 크게 허물지 않고 이른바 사실(事實)과 사실(寫實)을 보다 극명하게 묘사하자는"[50] 「작가의 말」처럼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크게 파괴하지

45) 같은 책.
46) 같은 책, 189-190면.
47) 같은 책, 190면.
48) 같은 책, 248면.
49) 같은 책, 260면.
50) 김주영, 「작가의 말」, 『외설춘향전』, 민음사, 1994, 335면.

않으면서 새로운 인물인 장사꾼 장돌림과 성참판의 본부인인 최씨를 등장시켜 인물과 사건을 새롭게 변개시켰다. 우선 편의상 만남-사랑-이별-수난-재회로 이루어진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고려해 전체 이야기를 8단락을 나누어 본다.

① 춘향의 출생담
② 광한루에서 이몽룡과 춘향의 만남
③ 이몽룡과 춘향의 첫날밤
④ 이한림의 부승지 승직과 이별
⑤ 성참판의 본실 최씨 부인의 행패
⑥ 이몽룡의 처지와 장돌림의 구원
⑦ 변학도의 부임과 장돌림의 활약
⑧ 춘향의 수난과 구출

「춘향전」의 도식대로 만남-사랑-이별로 이어지는 ①-④의 이야기는 사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물과 세부묘사에서 변개를 시도했다. 우선 주목되는 인물이 남주인공 이몽룡이다. 「열녀춘향수절가」나 「남원고사」 등에서 "년광은 이팔이요, 풍치는 두목지라. 도량은 창히 갓고 지혜 활달ᄒᆞ고 문장은 이빅이요, 필법은 왕히지"[51]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한량이 없었고 그런 팔난봉이 있을 수 없을"[52] 정도로 천하에 난봉꾼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고본의 "호협방탕하여 청누주사(靑樓酒肆)를 드나들던"[53] 인물형상을 수용한 결과다. 그래서 춘향이를 보기 위해 방자에게 '형님'이란 말을 서슴없이 해대며 주색잡기에 빠져 파락호로 전락했을 때는 남원 이방을 만나 술사라고 조르고 옥에 갇힌 춘향의 신세는 개의치 않고 월매에게 돈까지 빌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몰락한 처지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새로운 인물이 바로 장사꾼인 장돌림이다.

51) 정하영 역주, 「열녀춘향수절가」, 『춘향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22면. 본고에서 일반적으로 「춘향전」이라 함은 이 이본을 지칭한다.
52) 김주영, 앞의 책, 25면.
53) 「春香傳」(李古本), 앞의 책, 191면.

장돌림은 실상 작품 속에서 진정한 주인공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인물이다. 작가도 “이몽룡은 장돌림이라는 대리인의 돌격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완성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54]고 하여 장돌림이 사건의 중심인물임을 밝혔다. 장돌림은 난봉꾼 이몽룡과 칠패 저자거리 채련의 술집에서 만나 시비가 붙던 중 이몽룡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돕기로 작정하여 ‘사대부의 처지’를 들먹이는 이몽룡을 향해 이렇게 꾸짖는다.

> 댁은 서슬퍼런 사대부요, 시생은 조선팔도를 정처없이 떠도는 미천한 장돌림인 것을 왜 모르겠소. 그러나 우리들이 입씨름을 하게 된 시단이 해웃값만 건네주면 속곳바지를 훌떡 벗어던지고 지체없이 알궁둥이를 둘러대는 논다니 계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소. 시생이 듣건대, 사대부는 그 체통을 엄중하게 여겨서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베개로 잠을 청하는 궁핍을 겪을 지라도 몸가짐에 괴팍하여 한길가 저자거리의 잡되고 추한 것에 삼엄한 경계를 둔다 하였소. 그래서 사대부는 장거리에 볼일이 있다 하여도 삼가서 그 수하의 노복으로 하여금 장거리로 내보낸다는 것은 댁에서도 모를 리 없겠지요. 그러나 외람되게도 댁은 사대부의 지체로 장거리 한가운데 있는 창부의 집에 와서 왜자한 소리로 스스로 사대부의 이름자를 더럽히고 있음이 아닙니까. 사대부의 지체란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여 거두지 않으면 자칫 더럽혀지기 십상이 아니겠습니까. 댁이 기어코 결기를 삭일 수 없다면 주먹을 들어 시생의 뺨따귀를 치시오. 시생이 감내해 드리리다.[55]

장돌림이 사대부같이 당당하고 이미 주색에 찌들어 몰락할 대로 몰락한 처지인 이몽룡은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 이런 이몽룡을 구해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실현하게 만드는 역할을 장돌림이 맡는다. 이를 통해 양반과 민중들의 연대, 곧 “신분을 넘어선 의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56]주고자 했다. 장돌림은 이몽룡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아 ⑥-⑧의 변학도의 부임과 여기에 따르는 여러 사건들을 주도해 나간다. 변학도의 배행(背行)을 가장해 과천에서 채련과 짜고 변학도를 관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스스로 변학도로 위장해 신연행차를 남원으로 끌고 가서 변학도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주도

54) 김주영, 앞의 책, 335면.
55) 같은 책, 138-139면.
56) 같은 책, 335면.

한다. 나중에는 이방과 짜고 남원 세곡의 이문을 15만냥 어음으로 바꿔 이를 옥에 갇힌 춘향과 교환해 이몽룡과 만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다.

장돌림이 이몽룡의 구원자라면 최씨 부인은 춘향의 조력자인 셈이다. 최씨는 드센 성격과 "왜자한 용력"[57]을 지닌 성참판의 본처로 ⑤에서 남편을 죽게 만든 월매를 찾아와 설전을 벌이는 중에 춘향이가 나서서 "어머님"[58]이라며 말리자 화가 사그라져 춘향을 자식으로 여기게 되고 춘향도 어머니로 여겨 극진히 봉양한다. 마침 춘향을 잡으러 온 나졸들과 최씨는 시비가 붙어 관아로 끌려가고 수청을 거부하던 춘향이 최씨 부인의 방면을 대가로 옥졸들에게 봉변을 당한 변학도의 약시중을 드는 사태로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열녀춘향수절가」의 문맥대로 수청을 강요하는 변학도와 죽기로 이를 거부하는 춘향이 설전을 벌이는데 변학도가 "모반하는 자는 능지처참이요, 관장을 조롱하는 자는 대매에 쳐죽이고 관장의 분부를 거역하는 자는 정배(定配)시킨다."[59]고 열거하자 춘향이 "그중에서 유부녀 겁탈하려는 자는 하초에 달린 생고기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왜 빠트리십니까?"[60]라 하여 분노한 변학도가 춘향을 매질하고 옥에 가두는 지경에 이른다. 이는 "유부겁탈 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61] 대목을 속되게 바꾼 것이다.

뒷부분의 이야기는 원전 「춘향전」의 문맥을 이탈하여 장돌림에 의해 사건이 주도되고 여기에 최씨가 가세하여 의외의 방향으로 서사를 끌고 가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운봉영장과 이몽룡의 만남을 계기로 「춘향전」의 이야기와 변개된 이야기가 서로 만난다.

> 이몽룡이가 기생과 노닥거리고 있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운봉영장이 가만히 대청을 내려와서 다가와 이몽룡을 손짓하였다. 이몽룡이 마지못해 일어나서 운봉영장의 뒤를 따라 동헌 뒤곁 반빗간 쪽으로 갔다. 이몽룡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 운봉영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57) 같은 책, 97면.
58) 같은 책, 98면.
59) 같은 책, 276면.
60) 같은 책.
61) 정하영 역주, 앞의 책, 140면.

"자네, 춘향이를 찾아온 사람 아닌가?"
정곡을 찔렸음에 쑥스럽고 무안하였으나 실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막인즉 그렇소."
"자네 알성급제(謁聖及第)하여 마패 차고 왔는가?"
"시생 또한 학수고대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신세 딱하게 되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럼 일은 대단히 잘못되었네. 춘향은 여기 없네."
"춘향이가 없다니요. 저 흉물스런 사또가 토옥에 내려가둔 것이 아닙니까?"
"한양 삼개(마포)에 있다는 경주인이 데리고 간 지 달포나 되었네."
"춘향이가 파옥(破獄)을 한 것입니까?"
"춘향이가 파옥한 일은 없지만 최씨부인과 함께 경주인을 따라 간 것은 분명하니, 남원에서 춘향을 찾을 게 아니라 한양 삼개에 가서 찾아보게."62)

한 서사의 공간 속에서 두 개의 시점이 다른 이야기가 서로 충돌한다. 운봉영장은 원전 「춘향전」에 속한 인물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왔다고 여겼지만, 여기서의 이몽룡은 「외설춘향전」의 인물로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 부조화는 무엇인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됨으로써 옥에 갇힌 춘향을 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전복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양반 이몽룡이 아닌 민중인 장돌림의 주도로 춘향이 구출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외설춘향전」은 「춘향전」을 이몽룡과 춘향에 의해 서사화 되는 것이 아닌 피지배계층인 장돌림에 의해 주도되는 일들로 변개하고자 했을 것이고, 이런 변개의 방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지배층인 양반계층의 무능과 한계를 풍자하고자 했다. 일련의 사건을 주도하는 역할을 장돌림에게 부여하여 민중의 주도로 「춘향전」을 다시 만든 것이다. 작가도 "양반과 천민이라는 철저한 계급구조 속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던 장돌림은 그러나 철저하게 양반계급인 변학도와 이몽룡을, 때로는 익살로 때로는 완력으로 농락하"여 "기존의 「춘향전」에서 방자 혼자만 감당해왔던 활력과 익살을 더 한층 보강하려"63) 했다고 한다.

62) 김주영, 앞의 책, 324-325면.
63) 같은 책, 335면.

작품의 결말에서 "이몽룡이가 알성과(謁聖科)에 급제를 한 것은 그로부터 삼 년 뒤인 알성시(謁聖試)에서였다."[64]라고 과거 급제를 춘향의 구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일담으로 다루고 있으며, 탐관오리의 학정을 고발하는 시도 곁들여 언급하고 있다. 「춘향전」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결구가 여기서는 이미 시의성(時宜性)이 지났음을 알리고자 함이다.

3. 정치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와 풍자

1) 1960년대 '어두운' 정치현실의 알레고리, 「춘향뎐」(1967)

최인훈의 「춘향뎐」은 "가장 어두운 중세의 밤을 보낸 여자"[65] 춘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원전 「춘향전」에서 춘향은 수청거부로 인한 변학도의 폭력을 이겨내고 이몽룡과 다시 만나 '정렬부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자다. 춘향은 그렇게 수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양반의 노리개가 아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신분해방'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왜 가장 '어두운' 중세의 밤을 보냈다고 했을까?

최인훈의 「춘향전」 변개는 바로 춘향이 옥에 갇힌 '어두운' 지점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만약 이몽룡이 문제가 생겨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한다면 춘향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정말로 이몽룡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최인훈의 「춘향뎐」은 이렇게 「춘향전」의 인물 역할과 주요 사건들을 비틀고 변개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 작품은 여러 사건들이 서로 얽혀 있는데, 주체나 시점에 따라 6개의 삽화로 나누면 이렇다.

---

64) 같은 책, 325면.
65) 최인훈, 「춘향뎐」, 『웃음소리』, 민음사, 1996, 56면. 이 작품은 처음 『창작과 비평』 1967년 여름호에 실렸었다.

① 옥에 갇힌 춘향(춘향)
② 멸문지화를 당한 이몽룡(이몽룡)
③ 춘향을 굴복시키려는 변학도(변학도)
④ 월매를 찾아간 이몽룡(이몽룡)
⑤ 작가의 설명과 춘향・이몽룡의 '밤도망'(작가)
⑥ 심마니 노인과의 조우(심마니 노인)

이런 6개의 각기 시점을 달리한 삽화들이 모여 「춘향뎐」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춘향뎐」은 다층적인 시선의 여러 이야기가 모여 형성된 작품이기에 그만큼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도 단순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① 삽화는 옥에 갇힌 춘향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춘향전」의 문맥대로 춘향은 오로지 이몽룡만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녹의홍상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정렬(貞烈)도 한갓 뜬구름, 부질없는 사로잡힘"[66]이라고 주장한다. 춘향에게 살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 귀신은 원전 「춘향전」의 옥중 꿈속에 등장하는 황릉묘(黃陵廟)의 이비(二妃)를 비롯한 숱한 열녀들을 변개한 것으로 「춘향전」에서는 열(烈)의 가치를 드높이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말로 회유한다. 현대적 변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변학도가 춘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생 홍도(紅桃)에게 시킨 일이다. 옥중 꿈 속 삽화를 정반대의 실제 사건으로 바꾼 것이다.

② 삽화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이몽룡의 처지에서 사건이 진행된다. 이 대목은 「춘향전」 어느 이본에도 없는 부분으로 최인훈의 독창적인 변개다. 이몽룡의 부친이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갔으며 자신은 역적의 자손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었기에 남원으로부터 올라온 춘향의 상황을 알리는 급박한 편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을 그의 넋을 마저 빼버린 것"[67]이었다. 그래서 이몽룡은 춘향보다도 "더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었다."[68]고 한다. 정말 "춘향

66) 같은 책, 57면.
67) 같은 책, 58면.
68) 같은 책, 57면.

을 살릴 힘이 그에게는 없었”[69]다. 앞으로 춘향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③ 삽화는 시점이 변학도로 바뀌었다. 춘향의 수청거부가 그에게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더욱이 이몽룡이 멸문지화를 당해 희망이 없는데도 버티는 심사는 변학도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변학도는 “지금으로서는 그에게 남은 것은 오기밖에 없었다. 정히 끝까지 항명하면 물고를 내어 관장의 지엄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70] 결심한다. 실상 「춘향전」에서도 ‘관장발악(官長發惡)’한 것을 문제 삼아 춘향을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으니 관장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전과 동일한 논리를 보여준 셈이다.

④ 삽화는 월매를 찾아간 이몽룡의 이야기다. 「춘향전」에서는 비록 남루한 차림을 했지만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당당함을 감추고 있었다. 거지꼴을 한 이몽룡에 대한 월매의 핀잔이나 춘향의 낙담도 오히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자나 독자들에게는 결말의 극적 반전에 대한 즐거움을 배가 시켰다. 하지만 「춘향뎐」에서는 이미 멸문지화를 당해 과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더욱이 “부친 이공은 배소에서 약사발을 받았던 것”[71]이기에 더욱 절망적이다. 그럼에도 이몽룡은 춘향을 살려보려고 남원을 찾았던 것이다.

「춘향뎐」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기존 「춘향전」의 문맥대로 진행되지만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를테면 이몽룡을 위한 월매의 기원(祈願)이 「춘향전」에서는 과거급제의 축수(祝手)처럼 보이지만 「춘향뎐」에서는 “독 묻힌 화살”[72]로 가슴에 박힌다. 옥방의 춘향을 찾아보고 나서도 “오냐 춘향아 서러워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 소냐.”[73]고 하지만 암행어사가 아니기에 그 말은 확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가 아닌 이몽룡은 춘향을 살리기 위해 모종의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월매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자네 심정은 내가 알겠네. 이 지경에 별 도리가

69) 같은 책, 58면.
70) 같은 책, 59면.
71) 같은 책, 59면.
72) 같은 책, 60면.
73) 같은 책, 62면.

있겠는가. 고마우이."[74]라며 월매가 말을 건네는 것을 보아 서로 간에 암묵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삽화는 작가가 본격적으로 텍스트에 개입하여 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설명하고 "여기서 우리는 원본 춘향전과 갈라져야 되겠다."[75]고 선언하면서 「춘향전」 서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이제까지 암암리에 단순한 수화자로 존재하던 독자들을 내포독자로 끌어들여 작가와 같이 '공동창작자'가 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76] 텍스트 자체의 문맥을 변개하여 이를 현실과 대체시키고 그 변개의 공모자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만큼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건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암행어사의 등장이다. 기존 「춘향전」에서처럼 암행어사가 출두했지만 그는 당연히 이몽룡이 아니다. 춘향은 "동헌 뜰에 높이 앉은 암행어사가 갈 데 없는 서방님 이몽룡이거니 한 춘향의 아름다운 환상은 얼굴을 들라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이 올려다보는 참에 쉽사리 깨어졌다."[77]고 한다. 이는 「춘향전」의 낭만적 결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냉혹한 현실의 개입이다.

문제는 변학도에 대한 처리다. 그런데 춘향의 문제와 별개로 여기서 작가가 개입하여 변학도의 처지를 설명하고 변호까지 한다. 작가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변학도는 「춘향전」의 문맥대로 '봉고파직(封庫罷職)' 되었지만 과연 그럴만한 죄를 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염집 여자에게 수청을 강요한 것을 가지고 폭정을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작품을 썼던 60년대와 비교하면서 "우리처럼 인권이 완전히 보장돼서 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가 완전히 없는 현대 한국 시민의 생활 감정으로 재어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권력에 갇힌 어두운 중세의 밤을 살던 옛사람들에게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지방관장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다."[78]라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 춘향에게 수

74) 같은 책, 63면.
75) 같은 책.
76)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132-133면 참조.
77) 최인훈, 앞의 책, 64면.

청을 강요한 것이 작가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만 춘향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작가가 개입하여 당시와 비교하여 변학도를 옹호하려한 것일까? 바로 작가가 살았던 60년대, 곧 "인권이 완전히 보장돼서 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완전히 없는" 당대를 풍자하기 위해서다. '완전히'라는 말이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인권이 보장되고, 사생활의 침해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라고 강조했지만 이것이야말로 통렬한 아이러니다. 작품이 발표됐던 1967년은 주지하다시피 군사정권의 담당자인 박정희가 재선에 도전한 6대 대통령선거에서 숱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 윤보선을 30만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일이 벌어졌으며, 선거 결과에 놀란 군사정권에서는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의 사찰과 통제를 더욱 강화해 국민에 대한 감시와 인권침해가 매우 고도화 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니 작품에서 얘기하는 인권보장과 사생활 침해는 실상 정반대의 주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변학도의 봉고파직이 "개인 변학도가 감당할 죄가 아니요 구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돌려져야 할 화살"[79]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학도는 앞 시대 정권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라는 얘기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구정권은 '어두운 밤'을 강조한 자유당 정권으로 그 독재도 문제 삼았다.

문제는 변학도를 봉고파직 시킨 암행어사가 결코 춘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춘향을 소실로 소망"하여 "열녀를 맞아 부귀영화를 같이하고 싶다"[80]는 말을 월매에게 전하고 월매는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연통을 하"[81]였던 것이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으로 "이몽룡 성춘향 양인의 앞에는 여전히 캄캄한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82]고 한다. 오히려 춘향에게는 더 암담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

78) 같은 책, 63면.
79) 같은 책, 64면.
80) 같은 책, 65면.
81) 같은 책.
82) 같은 책, 64면.

> 춘향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옥중에서 새운 밤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경우는 기다릴 이몽룡도 없고 믿을 모친도 없었다. 한 사람은 장모 눈치 보는 기둥서방이요, 한 사람은 적이었다. 그날 밤 그들 두 남녀의 방에서는 늦게까지 두런두런 말하는 기척이 들렸다. 캄캄한 밤이었다.[83]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암담한 춘향과 이몽룡의 처지는 1960년대 군사독재 시대의 정치상황과 겹치며 작가는 당시가 '옥중에서 새운 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이제 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군사독재로 상징되는 '캄캄한 밤'을 피해 소맥산맥 기슭으로 '밤도망'을 해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작가가 개입하여 변학도를 변호하고 봉고파직을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자행된 일로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구정권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인권보장'과 '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언급함으로써 「춘향뎐」의 서사를 노골적으로 1960년대 정치적 알레고리로 읽히도록 변개하였다. 이 부분에 와서 작가가 개입하여 독자를 공모자로 끌어들여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춘향전」의 문맥을 따라 진행됐던 앞선 이야기들이 정치적 자장으로 재소환 된다.

춘향은 '가장 어두운 중세의 밤을 보낸' 여자라고 했다. 다분히 정치적 함의가 있어 보인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의 독재가 그러지 않았던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인 이몽룡은 배소에서 사약을 받은 '역적'의 자손으로 멸문지화를 당해 춘향을 구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변치 않고 사랑한다. 그 고귀한 사랑은 변학도로 상징되는 자유당 정권의 폭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능력도 없지만 춘향을 옥에서 빼낼 결심을 했다. 그리곤 새로운 암행어사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자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소백산 기슭으로 숨어 들어간다. '정렬(貞烈)'이라는 중세의 도덕적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이들 끈질긴 사랑의 정체는 무엇인가? 변학도가 구정권, 곧 자유당 정권이고 신임 암행어사가 군사정권 세력이라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4.19혁명에서 5.16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자유당 정권과 군사독재의 폭압과

83) 같은 책, 65면.

회유 속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아닐까?

그런데 ⑥ 삽화에서 폭력의 세계를 피해 소백산 기슭에 숨어들었던 이들은 어떤 심마니 노인에 의해 발견된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아니라 '아낙네'와 '남정네'라는 익명성으로 발견된 것이다. 심마니 노인이 기억하는 것은 이들이 이 더러운 세상과 대비되는 "정결한 산의 식구"[84]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낙네도 "이 세상사람 같지 않게 아름다웠"[85]으며, 집과 살림살이도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다. 다만 남정네가 세상에 관심이 많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것저것 물으면서 긴 이야기를 바라는"[86] 처지로 세상에 대한 통로를 열어두고 싶어 했다. 특히 사약을 받고 죽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그랬지만 이마저도 아낙네는 매몰차게 거부하면서 세상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남정네를 이렇게 비속한 말로 꾸짖는다.

> "씨팔놈의 세상일 알아서 뭐 할랍디여?"
> 그러자 웅얼웅얼하는 남정네의 목소리.
> "오매 속 뒤집는 소리 마씨요잉. 효도에도 양반 상놈 있습디여."
> 이번에는 남정네의 대꾸가 없다.[87]

이런 비속한 말투는 '아름다운' 아낙네와 어울리지 않는다.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런 말을 통해 더러운 바깥세상을 욕한 것이다. 정결한 산의 세계와 어둡고 더러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차단하여 그들의 정결한 세계를 지키고자 했던 셈이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아간 심마니 노인은 결코 그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곳이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처럼 이른바 '무릉도원(武陵桃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심마니 노인은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양귀비 허벅다리"[88] 같은 엄청나게 큰 산삼을 발견한다. 사람들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84) 같은 책, 67면.
85) 같은 책, 66면.
86) 같은 책.
87) 같은 책, 67면.
88) 같은 책, 68면.

느끼지만 결코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심마니 노인이 다시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설화에서처럼 어쩌면 그 이상향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큰 산삼은 무엇인가? "탈인격화 되고 육감적인 이미지로 전환"[89]된 것이라지만 흔히 전기(傳奇) 소설에서 환상 속에 사건이 전개되고 난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증거물이 옆에 남아 있는 것처럼 '양귀비 허벅다리' 같은 산삼은 희망의 불씨로 현실에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 게다가 춘향은 그 어둠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토록 두려워"[90]하기까지 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의 폭압적인 정치현실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남아 그것을 물리칠 어떤 구체적 전망도 부재하지만 적어도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둠을 몰아낼 소망이 기적의 산삼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어둠의 세상을 피해 익명성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감춘 채 소백산에 들어가 서로의 사랑을 지킨 이들 춘향과 이몽룡의 애절한 사랑이 산삼으로 남았다는 암시가 그것이 아닌가. 최인훈은 「춘향뎐」의 알레고리을 통해 60년대 '어두운' 정치현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사랑의 소산인 '산삼'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91]

2) 1990년 '3당합당'에 대한 신랄한 풍자, 「옥중가」(1990)

최인훈이 「춘향뎐」을 통해 60년대 정치현실을 알레고리화 했다면 임철우 역시 「옥중가」를 통해 1990년의 정치현실을 알레고리로 표현하고 있다. 「옥중가」도 제목이 그렇듯이 이야기는 춘향이 갇힌 '남원옥'으로부터 시작된다.

---

89) 한혜선, 「최인훈의 '춘향뎐'을 읽는다」,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26면.
90) 최인훈, 앞의 책, 68면.
91) 차봉준, 「최인훈 「춘향뎐」의 패러디 담론과 역사인식」,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2010, 472면에서 작가의 의도가 "모든 인물들이 당면한 현실을 '어둠'으로 인식함에서 출발하여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비현실적 세계에서라야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산삼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곳은 「춘향뎐」의 감옥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온갖 인간 군상들이 모여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런 곳이다. 그곳에서부터 왜 춘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원전 「춘향전」의 문맥처럼 변학도에게 수청을 거부하여 들어오게 됐는데,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월매의 치밀하고도 영악하기 그지없는 계산과 조종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92]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예상했던 '기대지평'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춘향전」의 이야기를 시작부터 대폭 변개한 것이다.

춘향은 이몽룡이 떠난 뒤 "그동안 그 어린 녀석에게 부어 넣은 밑천이나마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93]에 월매와 같이 술장사에 뛰어들었는데, "이 대감 댁 책방 도령이 귀밑머리를 풀어주고 훌쩍 떠난 뒤부터 춘향이가 억지 생과부로 수절을 하기로 했다는 소문에"[94] 춘향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들어 "월매네 집 문전은 늘상 북적였"[95]다고 한다. "뭇 사내들의 구미를 당기는 미끼는 바로 그 「정절 높은 열녀」라는 소문일 거"[96]라고 한다. 이른바 '청루열녀(靑樓烈女)'인 춘향을 보기 위해 늘 문전성시를 이룬 셈이다. 돈만 내면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 기생이 자신만을 위해 절개를 지켜주기 바라는 남성들의 이중적인 심리가 '열녀기생'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춘향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상품화 하여 술장사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던 차에 월매가 이몽룡이 장원급제 했다는 소식을 알아냈다. "머나먼 한양 땅에까지 비상 연락망을 좌악 깔아 놓았던 것인지,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월매는 그 소식을 정확히 입수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97]던 것이다. 이제 술장사는 문을 닫고 '안방 차지'를 하려고 수절을 한다는 '여론조성'을 위해서 애쓰던 차에 일이 잘 되느라고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해 감옥에 들어온 것이다.

---

92) 임철우, 「옥중가」, 『물 그림자』, 고려원, 1991, 299면. 이 작품은 처음 금호재단에서 발행하는 『금호문화』(비매품) 1990년 4월호에 게재되었다.
93) 같은 책, 293면.
94) 같은 책, 291면.
95) 같은 책, 293면.
96) 같은 책, 294면.
97) 같은 책, 290-291면.

그러던 차에 일이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느라고 그랬는지, 신관 사또 변학도가 느닷없이 수청을 들랍시고 춘향에게 이방을 보내왔던 것이다. 예전 같으면야 버선코가 날아갈 듯이 반색을 하며 달려가고도 남을 일이었지만, 이번만은 월매도 여러 가지로 곰곰이 머리를 굴린 끝에, 한양으로 떠난 이 도령을 위해 수절하고 있는 형편이니 춘향을 보낼 수 없노라고 이방을 돌려보내었다.

당연히 상투가 꼿꼿해지도록 부아가 치민 변 사또는 당장 춘향을 끌어오도록 분부를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춘향은 끝끝내 두 낭군을 섬길 수 없노라며 버티는 바람에, 사또와 관속은 물론이고 온 남원 고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물론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월매의 치밀하고도 영악하기 그지없는 계산과 조종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98]

춘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전 「춘향전」과 같지만 이면적인 의도는 완전히 상반된다. 「옥중가」에서는 이제 곧 암행어사로 내려올 이몽룡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으로, '열녀 시늉'을 위해 의도적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여기서 춘향은 이몽룡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월매의 주도면밀한 계산에 의해 움직였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 '열녀'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이곳 '남원옥'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월매의 계산과 춘향의 행위를 「춘향전」의 주요 서사 단락과 비교해 정리하면 이렇다.

① 광한루에서의 만남 (월매가 춘향이에게 미리 광한루에 가서 그네 타고 있으라 시켜서 넋이 나간 이몽룡을 만났다.)
②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남다른 정을 주기는 했지만 양반 댁 정실로 안방차지를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③ 이별 (이몽룡에게 들인 '본전' 생각으로 혹시라도 장원급제를 하면 '안방마님'으로 들여앉혀 줄지 몰라 투자하는 셈치고 오류정에 나가 눈물 콧물 억지로 짜내며 이별 시늉을 했다.)
④ 변학도에게 수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오리라는 정보를 알고 '만고열녀'라는 증거를 만들고자 했는데 때마침 변학도가 수청을 거부한다고 옥에 가두어 주었다.)

98) 같은 책, 298-299면.

「춘향전」의 주요 서사가 외형적으로는 변개된 것은 아닌데 월매의 치밀한 계산과 각본에 의해 완전히 다른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인(動因) 자체가 바뀐 셈이다. 월매는 춘향에게 "인생은 한판 노름판이나 매양 한가지인 법이니라. 노름판에서야 양심이니 지조니 하는 개뼉다귀 같은 소리는 통하지 않는 거여. 먹느냐 먹히느냐, 판쓸이를 하느냐 알거지로 털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법이여. 자고로 계집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지 않더냐.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99]라며 인생을 노름판으로 보고 한 판 잡으라고 강조한다.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진정한 사랑이 한 판 잡아야 하는 '노름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는 남녀의 관계가 아닌 한 판 잡아야 하는 다른 관계, 곧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남녀 관계는 바로 민심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한국의 정치판과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가? 더욱이 월매는 "〈학실한 선택〉, 바로 일순간의 그 선택이 평생을 사지 쭉 뻗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100]이라 한다. '학실한 선택'은 당시 야당 정치인 김영삼이 자주 사용했던 독특한 어법이며, 「옥중가」가 한국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옥중가」는 더 나아가 마지막 반전을 보여준다.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도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일편단심 춘향이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하고 절절히 애원을 하"[101]면 「춘향전」의 행복한 결말처럼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일이 틀어져 암행어사인 이몽룡이 남원에 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긴 했지만 서도 알고 보니 그게 다아 뒷전으로 외교를 잘한 덕택이라지 뭐요. 심사위원 중에 변 판서라는 어른이 이도령의 춘부장하고는 오래 전부터 막역한 사이라는디, 그 변 판서한테는 사팔뜨기인 외동딸이 있답디다. 그래서 그 병신 딸하고 이도령하고 혼인을 시키기로 부모들끼리는 이미 약조가 돼 있"[102]으니 변 판서를 작은 아버지로 둔 변학도에게는 내려올 수가 없어 이몽룡은 남원에 들르지도 못하

99) 같은 책, 299면.
100) 같은 책.
101) 같은 책, 303면.
102) 같은 책, 305면.

고 바로 담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자 춘향도 '차선책'을 택해 변학도의 애첩으로 들어가는 '학실한' 길을 택한다.

> 오냐,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참말로「학실하게」선택 잘했다. 잘했어. 아암. 날이 밝는 대로 변 사또 나으리께 달려가서, 우리 춘향이가 드디어 마음을「학실히」비웠노라고, 이 기쁜 기별을 아뢰어 드릴란다.[103]

「춘향전」의 행복한 결말을 가져와 비튼 이 부분은 노골적으로 1990년 한국정치의 알레고리로 읽히도록 의도했다. 이몽룡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계산된 각본에 의해 '한 판' 잡으려고 했던 일이 어그러져 차선책으로 변학도의 애첩으로 들어가는 설정은 바로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결성했던 김영삼의 정치적 배신행위를 노골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이몽룡에 대한 '열녀 시늉'도 계산된 것이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한다."는 당시 야당 정치인의 발언도 표를 얻기 위한 고도의 계산으로 읽힌다. 더욱이 춘향이가 주저 없이 변학도에게로 '학실한' 선택을 했듯이, 광주를 피로 진압한 신군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민정당'으로 들어가 "해괴한 정치적 사건"[104]인 '3당합당'을 결행한 것이야말로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열망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겠는가? 이몽룡이 아닌 변학도를 선택한 것이 "꿩 대신, 아니지 닭 대신 꿩이"[105]듯이, '3당합당'도 김영삼의 계산에는 "닭 대신 꿩"이지 않았겠는가? 작가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 한동안 유행되었던「학실한 선택」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 즈음은 소위 저 3당 통합인가 뭔가 하는 해괴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고, 그 때문에 생긴 가슴앓이에 울화증으로 다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무렵이었다.[106]

---

103) 같은 책, 306면.
104) 같은 책, 46면.
105) 같은 책, 306면.

4. 맺음말

「춘향전」은 판소리 원전 자체가 수많은 '더늠'에 의한 변개 과정을 거쳐 형성됐거니와 현대에 와서도 이몽룡과 춘향의 관계, 그리고 변학도에 의한 수청강요와 춘향의 거부, 이어지는 수난의 과정은 그 스토리텔링이 워낙 탁월하기에 다양한 의미화나 알레고리가 가능하도록 텍스트가 열려져 있다. 특히 춘향의 수청거부와 수난은 그것이 관권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정치적 담론을 생산하는 주요 사건으로 역할을 한다.

변개의 첫 번째 방식은 「춘향전」의 사건을 따라 가되 그것을 근대의 정치적 담론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사건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인물은 조선시대의 형상인데 근대적 정치의식을 드러내자니 사건이 시대와 맞지 않아 웃음을 자아낸다. 「탈선춘향전」(1951)에서 민주정치에의 염원,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1950년대 자유당 정권의 시대배경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요 인물들은 여기에 맞춰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춘향과 이몽룡의 애정서사는 논쟁으로 이어져 어긋나며 그 빈자리는 방자와 향단의 사랑으로 대체하였다.

「외설춘향전」(1994)은 새로운 인물 장돌림과 최씨 부인을 등장하여 장돌림의 주도로 사건을 변개함으로써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성사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인물에 의해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어 「춘향전」의 애정서사를 양반이 아닌 피지배계층인 민중에 의해 주도되는 일들로 변개하고자 했다. 이런 변개의 방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지배층인 양반계층의 무능과 한계를 '풍자'하여 1980년대 이후 성장된 민중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두 번째 방식은 「춘향전」의 서사를 알레고리화 하여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이야기로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을 변개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해 정치적 알레고리의 틀을 만들었다. 「춘향뎐」(1967)은 춘향의 수청거부와 그로 인한 수난을 1960년대 정치적 알레고리로 삼아 '멸문지화'를 당한 이몽룡은 춘향을 구할 수 없는 데다 신임 암행

106) 같은 책, 46면.

어사는 춘향을 자신의 첩으로 요구하는 처지에서 이들은 '밤도망'을 해서 소백산 속에 숨어들어가는 것으로 변개했다. 당대 정권의 탄압을 보여주기 위해 이몽룡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사건을 새로이 추가했으며, 변학도와 신임 암행어사는 각각 자유당 정권과 5.16 군사정권으로 알레고리화 했다. 이들의 자취가 산삼으로 남았다는 설정은 자유당 독재와 군사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읽힌다.

「옥중가」(1990)는 「춘향전」의 서사를 대폭 변개하여 1990년 '3당합당'이라는 정치적 배신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이몽룡이 변판서의 사위가 되기로 약조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던 탓에 변학도가 있는 남원에는 가지도 못하고, '안방 차지'를 하려고 '열녀' 시늉을 하던 춘향은 이 소식을 듣고 변학도의 첩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춘향전」을 변개했다.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함으로써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던 춘향이 변학도의 첩으로 들어가는 변개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배신한 야당 정치인 김영삼을 풍자한 것이다.

「춘향전」은 주지하다시피 남녀의 '애정서사'지만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 격차로 인해 애정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변학도의 수청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관의 폭력과 전횡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변개가 일어나 이를 통해 정치의식을 드러냈다. 춘향이 변학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혹은 춘향을 구출하려던 이몽룡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해 그 언행과 생각들을 정치의식의 잣대나 알레고리로 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작가들이 현실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소설화 하지 않고 익숙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가져와 비틀어 정치서사로 변개한 것은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깨뜨려 반전의 쾌감을 줌으로써 그 행위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탈선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몽룡과 변학도에게 민주정치와 여권신장을 주장하고, 「외설춘향전」에서 장돌림이 사건을 주도하고, 「춘향뎐」에서 암행어사조차 춘향에게 자신의 첩이 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밤도망'을 해서 소백산으로 들어가고, 「옥중가」에서 이몽룡이 변판서의 사위가 되고, 춘향이 변학도의 애첩으로 가는 '학실한' 선택을 한 것은 이를테면 익숙한 서사에 대한 반전이자

전복으로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계기를 주는 것이다. 익숙한 서사의 흐름과는 다른 행위를 왜 하게 됐는가의 문제를 통해 변개된 고전의 이야기는 현재의 정치의식이나 알레고리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변개 혹은 패러디의 묘미가 바로 이런 익숙한 서사를 비튼 데에 있다. 「춘향전」이 분명 최고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데는 그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변개와 콘텐츠로 그 이야기의 유전자가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 형태의 담론으로 활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春香傳」(李古本), 『李明善全集 2』, 보고사, 2007.

김주영, 『외설춘향전』, 민음사, 1994.
이주홍, 『脫線春香傳』, 신구문화사, 1955.
李海朝, 『自由鐘』, 博文書館, 1910.
임철우, 「옥중가」, 『물 그림자』, 고려원, 1991.
정하영 역주, 『춘향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최인훈, 「춘향뎐」, 『웃음소리』, 민음사, 1996.

고은지, 「1930년대 대중문화 속의 '춘향전'의 모던화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4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272-303면.
권순긍,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金基鎭, 「通俗小說小考」, 『朝鮮日報』 1928.11.9-20.
김남석, 「1940-50년대 「탈선 춘향전」의 변모과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5-26면.
金台俊, 『朝鮮小說史』, 청진서관, 1933.
노지승, 「'춘향전' 패러디 소설과 1955년 영화 「춘향전」」, 『한민족어문학』 제5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53-87면.
차봉준, 「최인훈 「춘향뎐」의 패러디 담론과 역사인식」,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2010, 451-479면.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최혜진, 「김규택 판소리 문학작품의 근대적 특징과 의미」, 『판소리연구』 제35집, 판소리학회, 2013, 251-286면.
한채화, 『개화기 이후의 「춘향전」 연구』, 푸른사상, 2002.
한혜선, 「최인훈의 '춘향뎐'을 읽는다」,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11-154면.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Abstract】

Modern Modifications of *Chunhyang-Jeon* (춘향전) and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Kwon, Sun-Keung*

Lee Ju-hong's Talseon *Chunghyang-Jeon* (1951) does not change many parts of narrative structures. Instead, by adopting the details of narration skills, his work delivers such ideas as the criticism against the Jayu Party's dictatorship of 1950s, civil yearning for democracy, and equal rights for women. In particular, the image of Chunhyang is modified to such extent that she has arguments with Lee Mong-ryong and then refuses Byun Hak-do's demand for bed service. The empty place for love affections is successfully replaced with those of Bangja and Hyangdan.

Kim Ju-young's *Oyseol Chunhyang-Jeon* (1994) has new figures Jang Dol-rim and Mrs. Choi. This story is modified in that Jang Dol-rim plays a leading role in bringing success in love between Chunhyang and Lee Mong-ryong. Actually, the addition of the new incident by the new figure is an attempt in which the epic love of *Chunghyang-Jeon* is not led by the noble class but by the governed public. This modification is to demonstrate some developed public awareness of 1980s by satirizing the incompetence and limitation of the noble class.

Choi In-hoon's *Chunhyang-Dyon* (1967) rather attempts to show the political allegory of 1960s. His work modifies well-known narrative by changing the relevant episodes in which Chunhyang declines the demand for bed service and experiences great sufferings. Lee Mong-ryong's family is completely wiped out, as a result, he cannot save Chunhyang at all. Moreover, the secret royal inspector strongly demands Chunhyang to become his concubine. In Choi's work, Mong-ryong and Chunhyang decide to flee by night and hide in a deep place in Mountain Sobaek. Later, they run into an old man digging for sansam, wild ginseng. However, they are never found as the story comes to the end. Their ardent love, in spite of Byun Hak-do's threat and the royal inspector's

* Professor, School of Korea Culture and Media, Semyung University.

conciliation, is represented as the effort of the time to maintain democracy. A sansam, found on their residing place, is a clear representation for the seed of democracy, which has survived harsh political oppressions.

Lim Cheol-woo's *Okjung-ga* (1990) greatly modifies the narrative of *Chunghyang-Jeon* to present the allegory of the 1990's political merge of the three parties. Lee Mong-ryong is appointed as the royal inspector in the plot of becoming Byun Hak-do's son-in-law. He does not even come down to Namwon whereas Chunhyang only pretends to act as a faithful woman. In an attempt to secure practical interests, Chunhyang chooses to become Byun Hak-do's concubine. In such modifications of the narrative, the writer bluntly satirizes the politicians' betrayal of civil demand for democracy in 1980s.

Keywords: *Chunghyang-Jeon*, modification, political consciousness, love story, allegory, democracy, refusing bed service.

접수일: 2018.12.3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